

# WHERE IS MY FRIEND'S HOME

Hyundai Blue Prize  
Desig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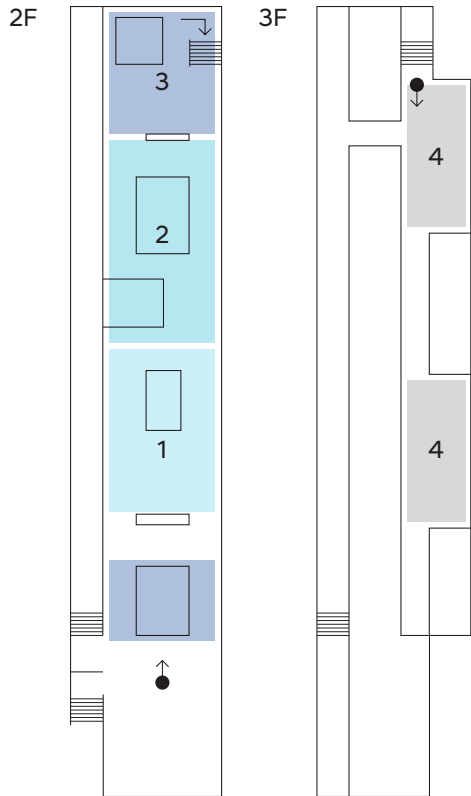
Winner's Exhibition  
2023. 12. 8 - 2024. 6. 16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편하게 전시 및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까이에 있는 구루(Guru)에게 문의하시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yundai Motorstudio Busan is free entrance and open for visit anytime during operation hour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xhibition, please ask a Guru nearby for friendly explanations.

전시 안내  
Exhibition Floor Plan



- Part 1** 이동 / Mobility
- Part 2** 확장 / Expansion
- Part 3** 관계 / Relationships
- Part 4** 아카이브 라운지 / Archive Lounge

# Where Is My Friend's Home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Hyundai Blue Prize Design 2022

## Hyundai Blue Prize Vision

현대 블루 프라이즈 비전

현대 블루 프라이즈는 신진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어워드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 하에 인간의 삶에 밀접한 아트와 디자인의 가치를 조명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차세대 큐레이터 양성을 위해 후보자 전원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상자에게는 전시 실행, 해외 연수 등의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7년 처음 시작된 블루 프라이즈를 통해 지금까지 총 14팀의 큐레이터가 배출되어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과 부산에서 각각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현대 블루 프라이즈가 통찰력 있는 차세대 큐레이터들의 전시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Hyundai Blue Prize** is an award program designed for emerging curators, providing a platform to illuminate and communicate the values of art and design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ligning with Hyundai Motor's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In pursuit of the vision of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curators, all candidates receive mentoring programs. Winners are offered with opportunities for exhibition execution and overseas training. Since its inception in 2017, the Blue Prize has supported a total of 14 teams of curators who have showcased exhibitions at either Hyundai Motorstudio Beijing or Busan.

Hyundai Motor Company will continue with the Hyundai Blue Prize to ensure that insightful emerging curators can have more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public through exhibitions.

## Hyundai Blue Prize Design 2022 Winner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 수상자

**박지민**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구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동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 경험을 통해 디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이를 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디자인과 전시를 기획합니다.

<제19회 디자인코리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성과 전시> (aT센터, 2021)의 콘텐츠 기획 및 리서치, 진행에 참여하였으며, 1인 창작자를 위한 전시형 마켓 <혼장>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2021)의 기획과 전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2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잠깐, 섬' (2022)을 선보였고, 2022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에서는 발효를 키워드로 사람들의 연대를 바라보는 '뽕뽕 커뮤니티'(2022)를 기획하였습니다.

**Jimin Park** is a furniture designer and curator based in Seoul. She earned her degrees from the Department of Design and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various design experiences, she seeks to understand the value that only design can possess and those who encounter it, showing an interest in a world where design and exhibitions coexist.

She participated in the content planning, research, and execution of the "The 19th Design Korea: Design-Driven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 Performance Exhibition" (aT Center, 2021). She also curated and designed "Honjang" (The Seoul Woman Craft Center, The Arium, 2021), an exhibition-style market for solo creators.

Most recently, as part of the "Seoul Public Art University Project," she presented "Pause on Nodul Island" (2022) and organized "Ferm Farm Community" (2022), which explores people's solidarity with the keyword of fermentation in the "Suwon Public Art Projects 2022."

## Hyundai Blue Prize Design 2022 Theme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 주제

### Shelter Next

고밀도 도시, 환경 오염과 팬데믹 시대를 직면한 우리는 정신적 피로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 지쳐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과 도피를 위한 공간이라는 기본적 개념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과잉 정보로부터의 휴식, 소통을 통한 휴식 등 새로운 'Shelter'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휴식의 환상, 도피의 환상, 안락의 환상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 휴식의 개념과 현실을 재해석해 볼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차세대 큐레이터와 함께 재해석한 새로운 'Shelter Next'를 제안합니다.

Faced with dense citi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andemic times, we are tired of mental fatigue and lack of communication. Therefore, beyond the basic concept of a space for relaxation and escape, we are yearning for a new kind of "Shelter," a break from excessive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and receiving comfort through communication.

There is a need to dismantle the illusion of relaxation, the illusion of escape, and the illusion of comfort. Also, the need to reinterpret the concept and reality of relaxation through a new perspective is necessary.

Hyundai Blue Prize Design proposes a new "Shelter Next" that reflects this trend of the times and reinterprets the concept by converging creative design ideas.

Winner  
Curator Jimin Park  
박지민 큐레이터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한 아이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닌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좁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한다. 골목길 사이사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친구의 집을 향해 간다. 전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에서 착안한 제목으로 전시를 통해 던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 친구,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간다.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가고 나아간다. 머무는 거주지 또한 마찬가지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스스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타의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동 과정은 과연 물리적 거주지 '집'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쉼터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영화에서 아이는 결국 친구의 집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집을 찾아다녔던 험난한 길을 넘어서니, 그 길 끝에 있던 새로운 방향성과 가치를 찾아낸다.

본 전시는 쉼터를 고정된 거주지로 한정 짓지 않고, 기능적 범주를 확장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자의 진정한 쉼터는 어디인지 찾아 나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쉼터로 인식하는 '집'은 '물리적 건물(House)'이라는 개념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집(Home)'이 될 때, 공간을 넘어서 집과의 추억이 생겨나고 나와의 정서적 교류가 더해질 때, 진정한 쉼터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때 진정한 '쉼터', 그 의미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안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점차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정을 주고, 시간을 보내며, 나와의 추억이 쌓인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사물이 생기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친구가 되고, 쉼이 되는 장소가 생기기

도 한다. 이는 정서적 쉼터가 되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 맺음'의 과정이다. 쉼터로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진정한 쉼터가 된다.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보다 가치롭고 의미 있게 만들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생활이 편리해지고 시간이 절약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이라 느끼는 때에도 대부분 어떤 사물, 공간, 장소 등에 머무르거나 마주하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만의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여러 대상, 장소와의 관계 맺음과 그 속에서 우려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본 전시의 핵심 키워드인 '관계 맺음'을 통해 정서적 쉼터를 찾아 나가며, 이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만의 쉼터를 찾는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 박지민

## Where Is My Friend's Home

A child is searching for a friend's house. He climbs winding and hilly paths and goes up and down narrow stairs. Along the alleyways, he asks people he meets for directions and makes his way to the friend's house. The exhibition "Where Is My Friend's Home" takes its title based on the film by director Abbas Kiarostami. It carries the ultimate message that it wishes to convey - where is your true home?

We constantly live our lives in a state of perpetual movement. We continuously walk and progress toward somewhere. Our places of residence are no different. We move by our will in search of a better environment, but we also find ourselves moving involuntarily due to societal circumstances. In the process of this movement, i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physical dwelling, a "Home," truly provides us with a stability of shelter. In the film, the child ultimately fails to find his friend's house. However, after navigating the challenging path of searching a physical home, he discovers a new sense of direction and value at the end of that road.

This exhibition expands the concept of the shelter beyond a fixed place of residence and embarks on a journey to discover that our true shelters can exist in various forms. The concept of a "Home," which we perceive as a shelter, only indeed carries its meaning when it generates memories and emotional connections with us. True shelter can be found when memories formed and emotional bonds get stronger with the space beyond its physical boundaries. And this relationship provides a sense of stability. What makes us feel secure? Even things that

were initially unrelated to us can gradually grow relationships when we exchange love, spend time, and create memories with them. Meaningful objects can emerge from these relationships, enable us to find a comfort and new friendship with others, and even create a place of rest. Feeling a sense of shelter is not something extraordinary. Something ordinary, which initially seems unrelated to us, can become a true shelter as we start building a "Relationship" and begin to love it.

Hyundai Motor Company, based on its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enhance people's everyday lives. What makes an ordinary life more enriching and valuable? It's not just about making life more convenient and time-saving. Even in moments of solitude, positive emotions can be felt by staying in contact with certain objects, spaces, places, and so on, creating personal memories and experiencing meaningful moments. We accumulate valuable lives forming relationship with various subject and places and through the experiences that emerge from these relationships. This exhibition depicts the various forms of emotional shelters that emerged from "Building Relationships." It is hoped that the exhibition can also become a journey for everyone to find their own shelter within their lives.

### Jimi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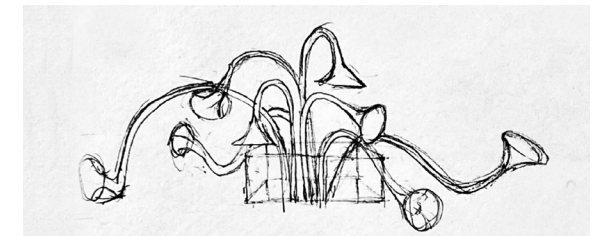


히비키 트리, 2023, 알루미늄, 열연강판, 전자부품, 495x551x1255cm  
*Hibiki Tree, 2023, Aluminum, steel, electronic parts, 495x551x12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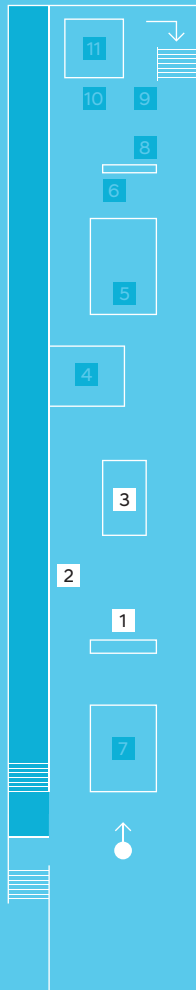
‘히비키 트리’는 공동체를 재미있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살펴봄과, 강인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다중 감각 체험을 제공한다. 자연, 공동체, 환경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이를 청각적 형태로 제시한다. 작품은 악천후를 견디기 위해 유연하고 자연 적응력이 뛰어난 버드나무와 같이, 고난과 어려운 감정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상징한다. 방문객들은 작품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놀이와 격려를 통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감정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소리에 기반한 독창적인 플랫폼에서 공유한 경험과 사교의 기회가 일상 속의 즐거움을 만들고, 타인과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성이 긍정적인 사회적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Hibiki Tree” provides a multi-sensory experience that expresses strength and determination while exploring the community in a fun and innovative way. It delves into the themes of nature,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presenting them in an auditory form. Like the willow tree’s flexible and adaptable nature to withstand adverse weather, it symbolizes the potential of individuals to withstand hardships and difficult emotions. Through the artwork, visitors can connect and interact with other, resulting in experiencing new emotions and fun. Social interactions accumulate, through this unique sound-based platform, creating joy in everyday life and fostering positive social catalysts by forming new relationships with others.

작가의 아이디어 스케치  
 Artist's idea sketch



2F



1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 • 리슨투더시티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  
Listen to the City

2  
정치적 기류 • 펠릭스 렌츠  
*Political Atmosphere* • Felix Lenz

3  
연착륙 • 오픈투베리어블스  
*Soft Landing* • Open To Variables

첫 번째 파트는 고정된 거주지 '집'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쉼터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세계화, 도시화의 흐름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자의, 타의로 움직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장소와 공간, 상황들을 마주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인간의 본질을 '호모 노마드'라고 정의한다. '호모'는 인간을 나타내며, '노마드'는 유목민, 유랑자를 뜻한다. 인간의 속성 중 하나인 이주성을 드러내며, 떠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동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집은 더 이상 영원히 머무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이동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서적 안식처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동의 상황을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쉼터에 대한 범주를 허물고자 한다.

리슨투더시티의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는 집에 담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맥락을 통해 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펠릭스 렌츠의 '정치적 기류'는 비행기 이동량을 실시간 수신하여 보여줌으로써 분쟁이나 전쟁과 같이 글로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오픈투베리어블스의 '연착륙'을 통해서도 한국에 기반한 사람들의 이동, 이주민 등의 이야기를 통계자료, 인터뷰 등으로 제시한다.

본 파트는 이동을 중심으로 현 거주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쉼터를 찾아 나가는 시작점이다.

The first par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our fixed residence "Home" is indeed our true shelter. We are constantly on the move, experiencing uncertainty in places, spaces, and situations due to the forces of globalization, urbanization, and various external factors, whether by choice or necessity.

The French economist, Jacques Attali, defines the essence of humans as "Homo Nomad." "Homo" represents humans, while "Nomad" signifies wanderers or roamers. It conveys that humans, reveal their migratory nature by one of their attributes and are fundamentally people who wander.

A physical house can no longer be a permanent space for humans, who are inherently mobile beings. How can we seek emotional sanctuaries in a world of constant human mobility? By examining the various societal, politic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mobility situations surrounding us, we aim to break down the conventional categories of shelter.

Listen to the City's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encourages u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homes under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associated with homes. Felix Lenz's "Political Atmosphere" indirectly allows us to experience the causes of global mobility, such as conflicts and wars, by displaying real-time data on airplane movement. Open To Variables' "Soft Landing" presents stories of movement and immigration in South Korea, using statistical data, interviews, and more.

This part focuses on mobility and raises questions about a current place of residence,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the quest to find a true shelter.



##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 Listen to the City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 / 리슨투더시티

‘집의 의미’,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는 시민 워크샵과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집의 의미와 살기 좋은 도시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을 존재가 영위하는 공간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가치로 축소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가는 시민 참여 워크샵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꿈꿔야 하는 도시에 대해 고민한다.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는 서울 도심이자 산업생태계의 중심인 을지로가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도시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안을 그려보는 시민 참여 워크샵 결과물을 제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중구청에 의견서로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consist of two areas that question the meaning of home in Korean society and its relationship with a livable city through citizen workshops and surveys. In South Korean society, many problems have arisen because homes are often reduced to real estate values rather than being seen as spaces for living. Workshops with citizens conducted to discover Seoul citizens’ vision of an ideal home, leading to discuss about the type of city we dream of.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envisions if Euljiro, a central part of Seoul city and industrial ecosystem, becomes a user-centered city rather than full of apartments. The workshops draw alternative solutions for such a city. It is planned to be formally submitted as an official statement of citizens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Jung-gu Office.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 2023,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2분 50초, 그래픽, 270x400cm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202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2min 50sec, graphics, 270x400cm

### 디스토피아에 대항하라

서울시보다 청계천을지로 도시계획 더 잘하기 워크샵  
리슨투더시티,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FDSC

참여자 : 김하은, 엄선호, 유재현, 이동근, 정지아, 구지민, 성윤주, 이상준, 이정욱, 김채영, 임정연, 정지윤, 조혜윤, 함주희 • 길잡이: 박은선, 안근철 • 영상 촬영: 리렌 샬릿

### Against Dystopia

Advocating for better urban planning than the Seoul City Government  
Listen to the City,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FDSC) collaborative workshop

Participants : Haeun Kim, Seon-Ho Um, Chae-Hyeon Yoo, Dong-geun Yi, Ji-Ah Jeong, Jimin Koo, Yoonjoo Sung, Sangjun Lee, Jungok Lee, Chaeyeong Kim, Jungyeon Lim, Jiyoun Jeong, Hyeoon Cho, Juhee Hahm • Tutor : Eunseon Park, Guncheol Ahn • Video : Liron Shalit

### 디스토피아에 맞서라

도시 인포그래픽 디자인 워크샵  
리슨투더시티,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FDSC

참여자 : 권민정, 김정민, 김지연, 박정수, 양오뜸, 왕효남, 이연수, 이정민, 임주연, 최유연 • 길잡이: 신민아, 한경희, 정유미, 김태경, 안근철, 박은선

### Against Dystopia

Urban Infographic workshop  
Listen to the City, Cheongyecheon Euljiro Anti-Gentrification Alliance,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FDSC)

Participants : Minjeong Kwon, Jungmin Kim, Jiyeon Kim, Jungsue Park, Euddeum Yang, Xiaonan Wang, Yeon-Soo Lee, Jung-in Lee, Jooyeon Lim, Yuyeon Choi • Tutor : In-ah Shin, Kyunghye Han, Yumi Jung, Taeyoung Kim, Eunseon Park, Guncheol Ahn



워크숍 현장 스틸컷  
Workshop still image

## Political Atmosphere / Felix Lenz

### 정치적 기류 / 펠릭스 렌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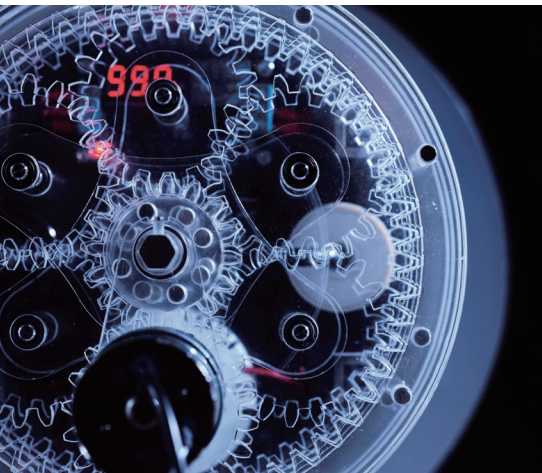
QR 코드로 접속하여  
작품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 code for additional information  
and video documentation.

‘정치적 기류’는 비행 난기류, 기후 변화, 전쟁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몇 달간 추적한 연구 과정의 결과다. 약 1세기 전, 영국의 기상학자이자 평화 연구자인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은 대기의 기류를 예측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정치적인 기류를 예측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이 작품은 동시대의 기후과학을 고찰함으로써, 인류세의 맥락에서 그의 가설을 탐구한다. 이러한 관계는 데이터 기반의 사이렌과 주변 비행 트래픽을 수신, 처리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ADS-B 안테나로 구성된다. 각 비행은 임계값이 통과되고 메커니즘이 사이렌을 해제할 때까지 축적되며 천천히 가속한다. 사이렌의 굉음 ‘Roar’은, 문자 그대로 ‘굉음’ 그리고 은유적으로 ‘울부짖는 듯한 소리’, 갈등으로 찢어졌던 지역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전시 공간으로 다시 끌어들여 인도주의, 지정학적 티핑포인트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와 탈 산업적 소비주의와의 얽힘을 가리키기도 한다.

초기 지원 : 빈 응용예술대학교 디자인 연구(D2) • 코딩 및 제작 지원 : 레오 뮐펠트 • 추가 제작 지원 : 크리스티안 나라트(알렉스 테크놀로지스)

Initiated at and with generous support of : Design Investigations (ID2), University of Applied Arts Vienna • Coding & technical support : Leo Mühlfeld • Production support : Christijan Narat (Alpex Technologies)

“Political Atmosphere” is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research process tracing the invisible connections between flight turbulence, climate change, and war. About a century ago, Lewis Fry Richardson, a British meteorologist and peace researcher, theorized that the same methods he used to forecast atmospheric turbulences like conflicts and war. This installation further explores his hypothesis in the context of the Anthropocene. The complexity of these relations is made tangible through a data-driven, mechanical siren and an ADS-B antenna, which allow for receiving, processing, and visualising the surrounding flight traffic. Each flight gradually accelerates the latent build-up of potential until a threshold is passed and a mechanism releases the siren. The siren’s roar, both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has become part of reality in conflict-torn areas. It not only signifies a humanitarian and geopolitical tipping point but also points towards its entanglement with colonialism and post-industrial consumerism.



정치적 기류, 2020, 비디오 설치, 컬러, 실시간 송출, 사이렌 모듈, 금속, 콘크리트, 산업용 모터, 플렉시 글라스, 목재, 전자 부품, ADS-B 안테나, 가변크기  
*Political Atmosphere*, 2020, Video installation, color, live software, siren module, metal, concrete, industrial motor, plexiglass, wood, electronic device, ADS-B antenna, dimensions variable



Flights Tracked		Flight Density	
3		12 %	
Flight [No]	Speed [Kt]	Altitude [Ft]	Heading [°T]
TRW07	394.8	21000	144.79
JA819	400.4	20000	212.02
AAM16	400	21000	148

Log: Listening 1



## Soft Landing / Open To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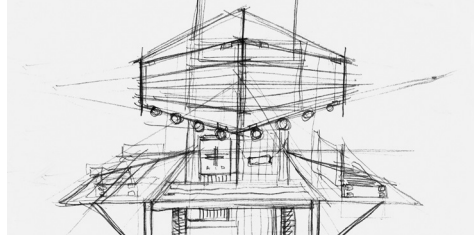
### 연착륙 / 오픈투버리어블스



QR 코드로 접속하여  
모든 리서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QR code for more research works.

웹/그래픽디자인 : 유지연 • 웹사이트 개발 : 문정주 • 리서치 도움 : 박광호, 정수인, 임선영(국가인권센터), 신운경(서울시립대학교), 정다운(서울도시건축아카이브), 김달성(포천이주민센터) • 영상 제작 : 권아람

Web/Graphic Design : Jiyeon Yoo • Web Development : Jungju Moon • Research : Gwangho Park, Suin Jeong, Sunyoung Li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a Eun Jeong (Seoul Urbanism & Architecture Archive), Woon Kyung Shin (University of Seoul), Dalsung Kim (Pocheon Migrant Center) • Video Production : Aram Kwon



작가의 아이디어 스케치  
Artist's idea sketch



연착륙, 2023,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30분 26초, 그래픽 출력, 혼합매체, 가변크기  
Soft Landing, 202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30min 26sec, graphic print,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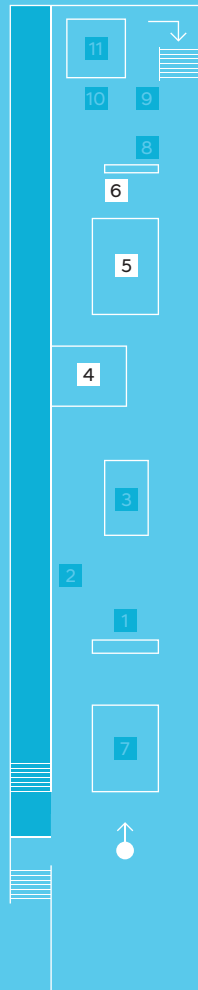


‘연착륙’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주(migration)’의 역사 리서치를 기반으로 내일의 한국 사회를 그려보는 작업이다. 통계청은 2040년대 한국의 이주 배경 인구는 총 인구의 6.4% 수준인 323만 명으로 전망한다. 이주 배경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마치 강냉이와 팝콘처럼 가벼운 데이터로 그려지는 이주배경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무게가 있을까? 땅의 거주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쉼터이고, 어디에 착륙해야 할까?

“Soft Landing” is a project that envisions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ased on research into migration history.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it is estimated that by the 2040s, the immigrant population in South Korea will reach approximately 3.23 million people, making up about 6.4% of the total population. While the migration population is increasing exponentially, what weight is there in the stories of people with mi-

gration backgrounds when the stories are represented as mere numbers with no weight like corn and popcorn? Then how can we find the right weight for the story of immigrants? What is a shelter for those looking for a place to reside, and where should they land?

2F



4  
이향정 : 기억으로 만든 집 • 스튜디오 쉘터 & 기어이  
*Ihyangjeong : Carving with Memories •*  
Studio Shelter & GiiÖii

5  
아열대로부터 • 아키타입  
*Sugarcane from the South • archetypes*

6  
복어되기 • 장명식  
*Becoming a Balloon Fish • Myungsik Jang*

두 번째 파트는 여러 이동의 상황에서 고정된 거주지가 아닌 새로운 쉘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삶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nomad)은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이들의 이동은 창조적 행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단어 '노마디즘'은 특정한 규범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노마드의 세계를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스튜디오 쉘터 & 기어이의 '이향정: 기억으로 만든 집'은 한국의 주거난 속 작가의 과거에 살았던 집, 이향정의 추억을 VR 경험으로 재정의하고 재구성한다. 아키타입의 '아열대로부터'는 식물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쉘터의 모습을 상상한다. 장명식의 '복어되기'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인 쉘터로 나아가는 과정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이동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쉘터는 어디일까? 쉘터로 인식하는 범주를 넓히며 쉘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시작된다. 본 파트는 기억, 식물, 내재화 등을 통해 다양한 쉘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와 상상력을 펼쳐낸다.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쉘터에 대해 살펴본다.

The second part of the exhibition is a process of seeking new shelters in various situations of mobility rather than being bound to fixed places of residence. Nomads are the ones who constantly seek new lives and expand their actions creatively beyond the constraints of space. Based on this, the established term "Nomadism" signifies the constant search for a new self without being bound by specific norms or values. The French philosopher Gilles Deleuze has described the world of nomads as a "World in which vision roams."

Studio Shelter & GiiÖii's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 redefines and reconstructs the memories of the artist's past home, "Ihyangjeong," which was loca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housing crisis in South Korea, through a VR experience. archetypes' "Sugarcane from the South" imagines a new form of shelter created through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plants and humans. Myungsik Jang's "Becoming a Balloon Fish" humorously portrays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a stable shelter in a world where sea levels are rising.

For those in constant states of movement, where can one find shelter? This part aims to expand the categories we associate with shelter and suggests new possibilities of shelter. Through memory, plants, and internalization, various forms of shelter are explored and suggested by artists' stories and imaginations. Let's examine new types of shelter that artists present through their narratives.





##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 / Studio Shelter & GiiÖii

이향정: 기억으로 만든 집 / 스튜디오 쉬터 & 기어이

어릴 때부터 잦은 이사로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주인공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아버지의 낡은 집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 삶의 일부가 아닌 금전적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 현대인의 인식에 신물을 느낀 주인공은 아버지의 오래된 집이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300년 된 고택 이향정을 통해 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고 기억을 담을 새로운 집을 짓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기억이 사라져가는 현대인들의 집에 염증을 느낀 작가는 이향정이 가진 기억을 거울삼아 자신이 생각하는 집의 기능과 자신만의 기억을 남길 새로운 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From a young age, the protagonist, who is unable to settle down due to constant moving since childhood, begins to feel discontent with city life. Inspired by his father's old house, he decides to build a new home of his own. In a rapidly changing world, where memories are fading for modern individuals, the protagonist feels a sense of discomfort with the disappearing essence of homes. He looks to the memories held within the 300-year-old house, "Ihyangjeong" which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 He uses it as a mirror to establish a new home to restore the original functions of home and preserve his memories.

이향정: 기억으로 만든 집, 2022, VR, 컬러, 사운드, 17분, 작가 소장 오브제, 가변크기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 2022, VR, color, sound, 17mins, artist's personal items, dimensions variable*



**Sugarcane from the South / archetypes**  
아열대로부터 / 아키타입

식물 세밀화 : 이소영 • 시트 제작 : 피앤에드 • 영상 제작 : 무빙이미지 - 무브 로우, 음악 - ZFR studio • 도움 주신 분들 : 완도봉가네농장, 트렌비팜  
Plant Fine Arts : Lee Soyong • Sheet Production : PnAd • Video Production : Moving Image - mov raw, Music - ZFR studio • Support : Wando Ppongane Farm, Trenbi Farm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공생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식물과 인간의 공생지로서의 '쉼터'는 어떤 모양일까? 열대화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어떤 공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까? '아열대로부터' 프로젝트는 이러한 궁극적인 물음에 나름의 답을 탐구하는 과정을 기록·실험하면서, 미래에 상상할 수 있는 인간과 식물의 공생지,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태계로서 새로운 쉼터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사탕수수 of 이주를 중심으로 '이주 작물'의 역사적, 시대적, 환경적 맥락을 살피고, 열대화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떤 공생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린다. 과거 사탕수수 산업, 경작지와 함께 이동했던 노동자의 이주부터, 사탕수수를 비롯해 열대화 영향권에 속한 다양한 이주 작물의 현황까지 폭넓게 다룬다.

What kind of symbiotic relationship can be imagined between plants and humans? What will the shelter look like as a symbiotic habitat for plants and humans? What kind of symbiotic ecosystem can humans and non-humans form in the tropical world? "Sugarcane from the South" project documents and experiments the process of finding the answers to these ultimate questions, envisioning the possibilities of symbiotic habitats for humans and plants, furthermore, as a symbiotic ecosystem for humans and non-humans in the future. It examines the historical, temporal,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Migratory Crops," especially the migration of sugarcane, and portrays how humans and non-humans can live in symbiosis in the tropical world. It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from the migration of laborers who moved along with the sugarcane industry in the past to the current status of various migratory crops within the tropical influence zone, including sugarcane.



아열대로부터, 2023,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4분 50초, 수제 종이실험, 사탕수수, 수제 사탕수수 종이에 UV 평판인쇄, 에코톤 테이프스트리, 투명필름에 UV출력, 가변크기  
Sugarcane from the South, 202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4min 50sec, handmade papers, sugarcane, UV print on handmade sugarcane paper, ecotone tapestry, UV print on transparent film, dimensions variable





## Becoming a Balloon Fish / Myungsik Jang

복어되기 / 장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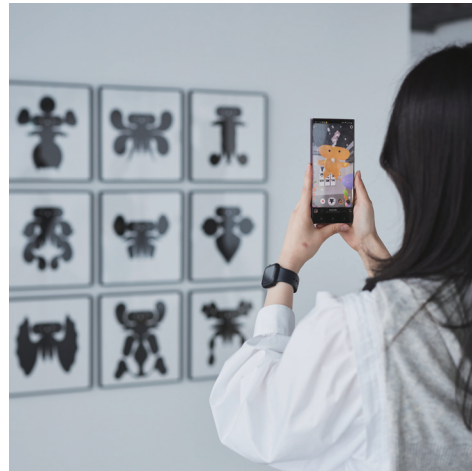


QR 코드로 접속하여  
페이스 필터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 code for Face Filter

‘복어 되기’는 물이 지배적으로 많아진 상황에서 부풀어 떠오르는 복어가 이상적인 동물로 받아들여지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젤리 인간이 내려놓음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물에서 떠올라 이상적인 쉼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함께 전시되는 드로잉은 이상적인 쉼터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젤리’다. 이 드로잉을 스캔했을 때 증강현실로 연동되어 평면의 드로잉이 전시장 위에 부풀어 올라 얹힌다. 흑백의 연필 드로잉과 고채도의 부피를 가진 형상들과의 대비를 통해 ‘부풀다’라는 시나리오 속 가치를 강조하여 보여준다. 물속에서는 물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빼야 몸이 떠오른다. 또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경쾌하고 편안해진다. ‘복어되기’는 내려놓음의 가치를 체득하면서 마음 속에 지을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이야기이다.

“Becoming a Balloon Fish” is a story set in the future where a balloon fish, which can inflate and float in the water, are considered ideal animals in situation where water is dominant. The animation depicts the journey of the Jelly human as they embrace the value of letting go and then float from the water to find an ideal shelter. The accompanying drawings represent the “Ideal Jelly,” considered as ideal shelter. When these drawings are scanned, they are integrated into augmented reality, causing a contrast from black-and-white pencil drawings and highly saturated volumetric shapes, emphasizing the value of “Inflating.” The body will float in the water when one releases their thoughts and strength to go against water. Likewise, when you let go of your thoughts and desires, the mind will become more cheerful and relaxed. “Becoming a Balloon Fish” is a story about finding a shelter that can be built within the heart while understanding the value of letting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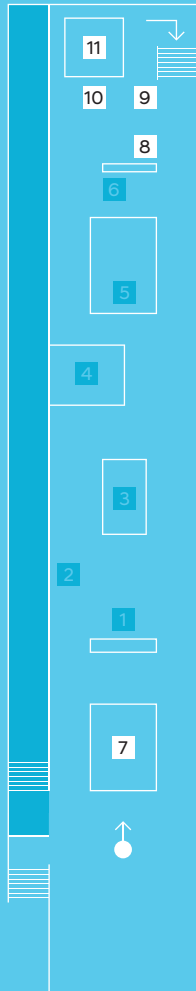
작가의 아이디어 스케치  
Artist's idea sketch



복어되기, 2023,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5분, AR, 핸드드로잉, 종이에 잉크, 270x450cm  
Becoming a Balloon Fish, 2023,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5mins, AR, hand drawings, ink on papers, 270x450cm



2F



- 7  
히비키 트리 • 유리 스즈키  
*Hibiki Tree* • Yuri Suzuki
- 8  
압축 카펫 2.0 • 루시 맥래  
*Compression Carpet 2.0* • Lucy McRae
- 9  
노리 • 김대욱  
*Nori* • Daeuk Kim
- 10  
UPOJBC130810 • 정봉채  
*UPOJBC130810* • Bongchae Jeong
- 11  
필로우스터디 2 • 박은영  
*Pillow Study 2* • Eunyoung Park

세번째 파트는 작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안하는 다양한 정서적 쉼터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좋은 것이 있더라도, 친애가 결여된 삶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진정한 쉼터가 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 특별한 것이 아닌, 축적되는 추억과 교류로 쌓여가는 친밀함이 쉼터를 형성한다. 사람과의 관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친밀함, 평안을 누리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다.

유리 스즈키의 ‘히비키 트리’는 대화와 사운드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루시 맥래의 ‘압축 카펫 2.0’은 기계를 통해 포옹을 재현하는 행위로, 김대욱의 ‘노리’는 머리 카락을 딸는 과정을 통해, 정봉채의 ‘UPOJBC130810’는 우포늪 안에서 자연 체화를 통한 편안함과 친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은영의 ‘필로우 스터디 2’는 호흡하는 오브제와의 정서적 공유를 보여준다.

당신의 진정한 쉼터는 어디인가? 본 파트를 통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쉼터가 되는 대상, 물체, 사람, 무형의 것들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The third part of the exhibition showcases emotional shelters proposed by the artists through their experiences. In his *Nicomachean Ethics*, Aristotle discusses what true happiness is. He emphasizes that even if one has all good things, a life devoid of friendship would not be chosen by anyone. Thus, what truly becomes our shelter is the subject with which we form a “Relationship.” It’s not something extraordinary. Anything that accumulates intimacy through shared memories and interactions can shape the shelter. This shelter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ship with people; it can expand to any subject that provides intimacy, peace, or connection as we engage with them.

Yuri Suzuki’s “Hibiki Tree” explores form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through conversation and sound. Lucy McRae’s “Compression Carpet 2.0” replicates the act of embracing through machines. Daeuk Kim’s “Nori” conveys intimacy through the act of braiding hair. Bongchae Jeong’s “UPOJBC130810” captures comfort and intimacy through an embodiment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Upo Marsh. Lastly, Eunyoung Park’s “Pillow Study 2” suggests emotional sharing with breathing objects.

Where is your true shelter? Through this part, we encourage you to fin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objects, people, and intangible elements, which can become your shelter at the end.

## Compression Carpet 2.0 / Lucy McRae

압축 카펫 2.0 / 루시 맥래

‘압축 카펫 2.0’은 포옹이라는 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방한 기계 시리즈의 일부이다. 직접적인 접촉 부족에 대한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작가의 상상력이 담긴 시도다. 디지털 세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영원한 연결성과 기술의 영향을 야기하며 이로 인한 존재의 실체가 간과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적인 접촉의 부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결여되는 감정의 개입을 적극 요구한다. 이 로우파이(Lo-fi)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두 명의 사람이 협업해야 하며 블러버(해양 포유동물의 지방)과 같은 쿠션들이 참여자의 몸을 포근히 감싸게 된다.

“Compression Carpet 2.0” is a part of machines series designed to mimic the positive effects of hugging. It represents the artist’s imaginative attempt to prepare for a future without direct human contact. It highlights the ever-increasing connectivity in our society through the digital world and the impact of technology while shedding light on the phenomenon of our actual existence being overlooked. This phenomenon leads to a lack of physical contact and, in turn, actively demands the involvement of missing emotions. To operate these low-fi machines, two people need to collaborate and cushions like blubber (fat of marine mammals) snugly envelop the participants’ bodies.

압축 카펫 2.0, 2019, 금속(자동차 잭), 목재, 섬유, 메모리 폼, 225x183x107cm, 인화지 출력, 84x59cm  
Compression Carpet 2.0, 2019, Metal (automobile jack), wood, textile, memory foam, 225x183x107cm, photographic paper print, 84x59cm



## Nori / Dae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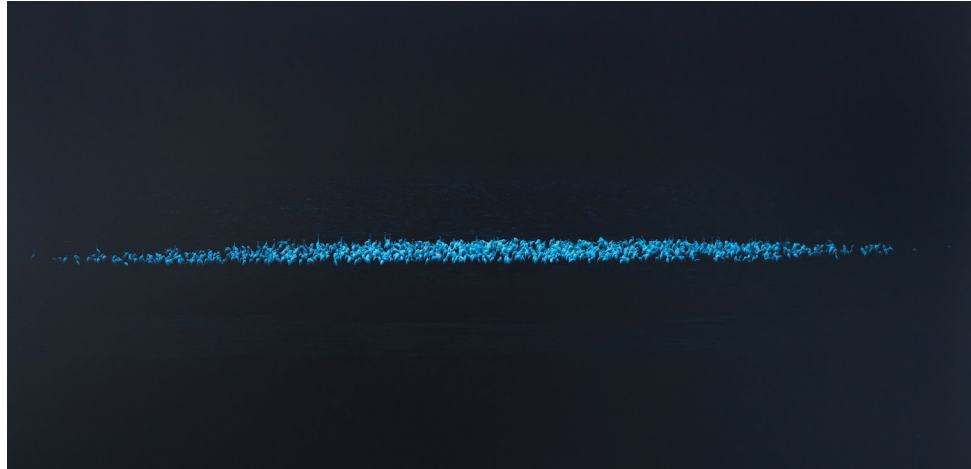
노리 / 김대욱

‘노리’는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의식적 행위를 통해 어린 시절 추억의 오브제 노리개를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작가의 욕망과 정체성, 선택의 자유는 한국의 보수적 문화 속에서 성별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억압되고 숨겨져야 했다. 이러한 개인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오브제 제작을 간접적으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의 안식처로 바라본다. 노리개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긴 머리를 흘날리며 땀을 상상하게 하는 오브제다. 머리를 빗고 땀을 흘리는 행위를 노리개의 공예기법과 통합시켜 어린 시절 꿈꾸던 상상의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은 토템으로 재탄생 시킨다.

“Nori” is a project that reinterprets the childhood memory object, Norigae, by deliberately fulfilling one’s desires. The artist’s desires, identity, and freedom of choice were suppressed and hidden due to societal expectations of gender within South Korea’s conservative culture. This object-making process, which allows the artist to express his personal desire indirectly serves as a sanctuary where he can find some freedom. Norigae was an object that allows the artist to imagine a world where he could let his long hair flow freely and braid it, something he couldn’t do in the real world. By integrating the act of combing and braiding hair through the craftsmanship of Norigae, it is reborn as a totem symbolizing the artist’s aspirations for the imaginative world he dreamt of since childhood.



노리, 2023, 와이어, 인조 머리카락, PLA, 에폭시 레진, 가죽, 가변크기  
Nori, 2023, Wire, artificial hair, PLA, epoxy resin, leather, dimensions variable



UPOJBC130810, 2013, 무광 디아섹, 월넛 프레임, 200x300cm  
UPOJBC130810, 2013, Non-glare diasec, walnut frame, 200x300cm

천 마리 백로는 잠을 청한다.  
8년만에 찾아온 촬영의 기회다.

A thousand egrets are at rest.  
It's the perfect opportunity to capture after  
eight years of waiting.

“UPOJBC130810”는 다가오는 새벽을 기다리며 직경 2미터까지 펼쳐진 가시연잎 위에 모여서 잠을 자는 한밤중의 백로 모습을 촬영한 작품이다. 작품 속 유일한 조명은 달빛뿐이며 어떠한 인위적 개입 없이 촬영되었다. 우포늪 수면위를 가득 메운 가시연잎은 수서곤충뿐만 아닌 물고기에게도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 여름밤 기온이 떨어지면 잎은 수축하고 새벽 동이 트면 그 틈새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은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 올라온다. 이때가 백로에게는 굶주림을 채우는 최고의 기회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 백로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식처로 가지 않고 늪 위를 임시 집으로 사용한다.

“UPOJBC130810” is the work that captures the image of egrets gathering on the thorny water lily leaves, which stretch up to two meters in diameter, and sleeping while waiting for the approaching dawn. The only light source in the artwork is the moonlight, and it was captured without any artificial intervention. The water lily leaves covering the Upo Marsh affect oxygen depletion to aquatic insects and fishes. As the temperature drops on a summer night, the leaves contract, and when the dawn breaks, small fishes rise between the leaves to breathe. This moment is the best opportunity for egrets to fill their hunger. To take advantage of this moment, egrets use the marsh as a temporary home instead of flying to distant habitats.

“필로우 스터디 2”는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을 구상하기 위한 스터디 과정의 오브제들이다. 필로우가 의미하는 것은 오브제의 모듈러한 성격으로, 필로우 모듈이 합쳐지고 확장되어 가구나 옷, 실내 건축, 휴먼 스케일의 설치 작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필로우들은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의 축소 모델들이며 이후 프로젝트를 위한 빌딩블록으로 작용한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필로우 스터디 2’는 ‘필로우 스터디’의 심화된 버전으로, 특히 호호하는 필로우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그림자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정서적인 효과를 실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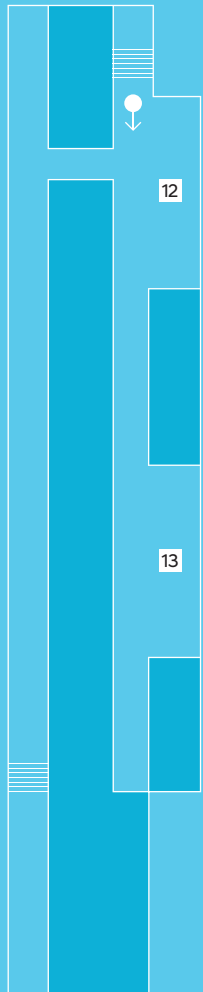
“Pillow Study 2” consists of objects from the study process aimed at conceptualizing a soft and emotional robot. Pillow signifies the modular nature of the objects. That can be combined and extended to build furniture, clothing, interior architecture, or human-scale installations. These pillows serve as scaled-down models of soft and emotional robots, the building blocks for future projects. The “Pillow Study 2”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is the advanced version of “Pillow Study,” specifically experimenting with the emotional effects of its form, texture, and changes in shadows produced by the breathing pillows.

필로우 스터디 2, 2023, 천, TPU, 아크릴, 공압 밸브와 튜브, 아두이노 및 센서, 가변크기  
Pillow Study 2, 2023, Fabric, TPU, acrylic, air-pressure tubes and valves, arduino and sensors,  
dimensions variable



# 아카이브 라운지 / Archive Lounge

3F



12  
현대 블루 프라이즈 아카이브 룸  
Hyundai Blue Prize Archive Room

13  
전시 아카이브 룸  
Exhibition Archive Room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선 이번 전시가 탄생하기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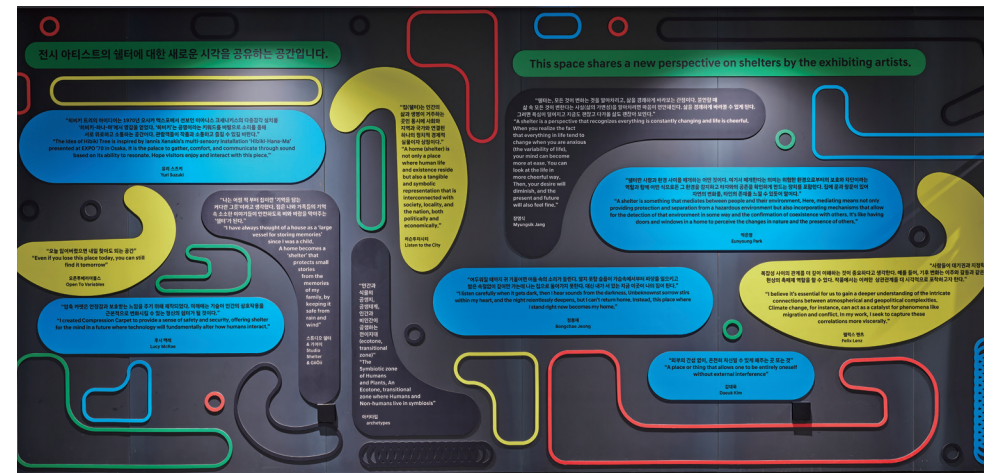
첫 번째 라운지에선 현대 블루 프라이즈의 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2017년 베이징에서 시작한 어워드는 매해 차세대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동시대의 고민과 지향점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블루 프라이즈의 역대 수상자와 그들의 기획 전시, 심사위원, 프로그램 사진 등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어워드의 다양한 노력과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운지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 속 쉼터를 찾아나가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전시팀이 그간 전시를 준비하며 아카이빙한 서적과 이미지들을 전시 및 작품과 연결해 보며 전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다양한 쉼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은 나만의 진정한 쉼터를 고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In the final space of the exhibition, we want to share journey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is exhibition with the visitors.

The archive of Hyundai Blue Prize is shown in the first lounge. The award started in Beijing since 2017 and has been presenting topics and meaningful issues to discuss with the public community. Please join us on the journey, introducing the previous winner curators, their exhibitions, the jury panel, and program photos.

The second lounge serves as the final stage of the exhibition "Where Is My Friend's Home." Here, visitors can explor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exhibition, its artworks, and the archive of books and images that exhibition team has referenced while working on the exhibition. As you reflect on the various types of shelters created by the experience and imagination of the artists, we hope you can contemplate to find your true shelter, transcending physical spaces.





# Artists

-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 결성된 예술가, 도시 연구자, 디자이너, 건축가들의 콜렉티브로써 도시를 하나의 작품 그리고 공동체(the commons)로 인식하며 도시를 움직이는 힘에 주목한다. 도시의 삶에서 간과되는 가치들, 목소리 없는 존재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오고 있다. 리슨투더시티는 예술작품 제작을 중점으로 하지만 그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세미나, 영화제작, 출판, 직접행동 등의 여러가지 관점과 방법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Listen to the City is a collective formed in 2009, comprising of artists, urban researchers, designers, and architects. They perceive the city as a single work of art and a shared resource (the commons) and pay attention to the forces that drive the city. They have been contemplating the overlooked values and voiceless entities in urban life. While “Listen to the City” primarily focuses on art production, they do not limit themselves to a certain medium and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research, seminars, filmmaking, publishing, and directing actions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methods.
- 펠릭스 렌츠**  
Felix Lenz

펠릭스 렌츠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리서치 기반 예술가, 디자이너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지정학, 생태, 기술에 대한 분석적 조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해석을 시각 결과물과 설치물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의 비디오 작품과 설치물은 베이징 아트 앤 테크 비엔날레,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이스탄불 디자인 비엔날레, 런던 디자인 비엔날레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베를린 응용 미술관(MAK)에 영구 소장 되어있다.

Felix Lenz is a research-based artist, designer, and filmmaker based in Vienna. He conducts analytical research on geopolitics, ecology, and technology and presents strategic interpretations of these subjects through visual works and installations. His video works and installations have been exhibited at various events, including the Beijing Art and Tech Biennale, Ars Electronica Festival, Istanbul Design Biennale, London Design Biennale, and are parts of the permanent collection at the Vienna Museum of Applied Arts (MAK).
- 오픈투베리어블스**  
Open To Variables

OTV는 박성원과 이서영이 시작한 디자인 콜렉티브로, 리서치를 중심으로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변 되는 사물이나 일시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OTV (Open To Variables) is a design collective founded by Sung Won Park and Seoyoung Lee. They focus on research to explore history, politics, and social contexts to create objects and temporary spaces based on their findings.
- 스튜디오 셸터 & 기어이**  
Studio Shelter & GiiŌi

스튜디오 셸터의 이성환 감독은 안동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13년 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왔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스튜디오 셸터'의 공동 설립자로, 그의 작품은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SXSW를 포함한 다양한 페스티벌에 선정되었다. 작품으로는 '아'(2011), '클리너'(2017), '우리'(2021), '이항정: 기억으로 만든 집'(2022)이 있다.

Director Sunghwan Lee of Studio Shelter was born in Andong, South Korea, and majored in animation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has been working in the animation field for over 13 years. As a co-founder of the animation studio “Studio Shelter,” his works have been selected to be shown at various festivals, including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and SXSW. His works include “Ah”(2011), “Cleaner”(2017), “Us”(2021), and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2022).
- 아키타입**  
archetypes

디자인 스튜디오 아키타입의 디자인문화 연구자 이지원은 오늘날 규범적, 인간중심적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실천적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험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담론 내 물질과 디자인을 재인식하는 연구 및 활동을 통해 리서치 기반의 그래픽 디자인, 저술, 전시를 만들고 있다.

Jiwon Lee, a design culture researcher at the design studio “archetypes,” critically examines contemporary normative and human-centered ways of life. Then, she experiments by transforming them into practical designs. Recently, she has been creating research-based graphic design, publications, and exhibitions by reimagining materials and design from the climate change discourse.
- 장명식**  
Myungsik Jang

장명식은 최근한 3D 시각 언어를 사용하여 '가변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모호하고 유동적인 젤리의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초현실적 젤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을 창작한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질감과 가상의 움직임을 3D 입체로 구현하여 일상의 이야기를 낯설게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춤'과 '변신'의 이야기를 담은 지난 개인전 '파운드리 서울'을 시작으로, 이번 전시에서 단편 애니메이션과 내러티브를 증강된 이미지로 확장한 작업을 전개한다.

Myungsik Jang conveys a narrative on “Variability” using a widely used 3D language.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ambiguous and fluid properties of jelly, he creates animations with “Hyperrealistic Jelly” as the protagonist. By implementing textures and virtual movements that can’t be seen in reality, he encourages viewers to look at everyday stories in an unfamiliar way. Started from his previous solo exhibition at Foundry Seoul, telling the stories of “Dance” and “Transformation,” he expanded the work to short animations and narratives into augmented images in this exhibition.

- 유리 스즈키**  
Yuri Suzuki

유리 스즈키는 사운드 아티스트, 디자이너이자 전자 음악가이다. 그는 사람과 소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작품을 통해 음악과 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며 소리의 다양한 영역을 탐구한다. 유리 스즈키는 2018년부터 디자인 에이전시 펜타그램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작곡가, 개발자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다. 펜타그램 런던 스튜디오 기반 으로 활동하며, 로우테크와 하이테크 분야를 넘나들어 디자인, 기술, 사운드의 경계를 넓히고자 한다.

Yuri Suzuki is a sound artist, designer, and electronic musician. Through his work, h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sound, questioning how music and sound influence one another while delving into various aspects of sound. Since 2018, Yuri Suzuki has been active as a partner at the design agency Pentagram, where he leads a team composed of designers, composers, and developers. Based in the Pentagram London studio, he endeavors to transcend the boundaries of low-tech and high-tech fields, expanding the horizons of design, technology, and sound.
- 루시 맥래**  
Lucy McRae

루시 맥래는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기술이 인류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다학제적 예술 연구 기반의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다. 갤러리 및 박물관 중심의 예술 활동과 감독, 제작자, 작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한다. 그녀는 미래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친밀감, 재생산, 영성, 생물학 및 웰니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작가적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이야기를 제안한다.

Lucy McRae is based in Los Angeles and leads a multidisciplinary art research studio that explores the impact of future technology on human evolution. She combines gallery and art museum-based art activities with a career as a director, producer, and writer. She contemplates how future technology will fundamentally change human intimacy, reproduction, spirituality, biology, and wellness culture by offering new narratives through artistic imagination.
- 김대욱**  
Daekuk Kim

김대욱은 오브제 메이커이자 스토리텔러이다. 2020년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DAE)에서 수료했다. 그는 성별과 정체성에 대해 인생에서 경험했던 한계를 작품을 통해 실험한다. 사물을 대안자와 대용품으로 투영하여, 현실에서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체한다. 사물과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에 의해 길러진 정상성의 틀에 대해 논의하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소망들과 환상들을 충족하려 노력한다.

Daekuk Kim is an object maker and storyteller. He graduated from the Design Academy Eindhoven (DAE) in 2020. Through experiments with the limitations he has experienced in life due to gender and identity. He projects objects as alternatives and substitutes, allowing him to do things he is prevented from doing in reality. Through visual communication with objects, he discusses the framework of normalcy nurtured by contemporary and rational society and strives to fulfill people's deepest desires and fantasies that they cannot openly express.
- 정봉채**  
Bongchae Jeong

정봉채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대학원에서 사진을 공부한 뒤 순수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연과 정화에 대한 관심으로 우포늪을 찍는 사진가로, MBC 환경캠페인 공익광고와 로드 리포터, VLUU, 내셔널지오그래픽, 모닝칼 등 각종 사진 전문 잡지에 자연 풍경 등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제10차 세계 람사르 총회 공식 사진가로 초대되었으며, 람사르 환경재단 홍보대사이다. 또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명사로 선정되었다. 사진집으로는 『평화의 마을』(삼성, 1993), 『우포늪』(눈빛, 2008), 『밤이 가고 낮이 가는 사이에』(성바오로, 2009), 『우포의 편지』(몽트, 2015), 『우포』(포토닷, 2017), 『지속한 끌림』(다빈치, 2020), 『우포따오기』(FOTASIA, 2023) 등이 있다.

Bongchae Jeong studied electrical engineering at university and later pursued photography in graduate school. He is currently active as a professional photographer. With a deep interest in nature and purification, he is known as a photographer who captures scenes of the Upo Marsh. His works have been featured in various photography magazines and publications, including MBC's public advertisement on environmental campaign, road reporters, VLUU, National Geographic, Morning Calm, and among others. In 2008, he was invited as the official photographer for the 10th World Ramsar Convention and served as a promotional ambassador for the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In addition, he was selected as a local ambassado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2022. Some of his published photography books include “Village of Peace” (Samsung, 1993), “Upo Marsh” (Nunbit, 2008), “Between Night and Day” (St. Paolo, 2009), “Letters from Upo” (Mont, 2015), “Upo” (Photo Dot, 2017), “Relentless Attraction” (Da Vinci, 2020), and “Gathering Upo” (FOTASIA, 2023).
- 박은영**  
Eunyoung Park

박은영은 설치미술, 디자인,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는 다학제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다. 그녀는 특히 예술-기술, 공예-첨단기술 등 상이한 분야 사이의 내재된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며, 이를 비평적 만들기의 경험, 놀이의 경험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관객 참여적, 상호작용적 작품 및 실험적 워크숍으로 이어져 관객에게 공유된다.

Eunyoung Park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and designer who works across various genres including installation art, design, video, and drawing. She enjoys exploring the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nd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revealing the inherent connections between art and technology, craftsmanship, and cutting-edge technology. She interprets this as an experience of critical making and an experience of play. These experiences often lead to interactive artworks and experimental workshops, to be shared with the audience.



##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023. 12. 8 - 2024. 6. 16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 주최

현대자동차

### 큐레이터

박지민

### 코디네이터

홍정아

### 전시디자인, 제작 및 설치

지엘컴, 새로운 아이

### 공간디자인

황희은(아로공간)

### 키비주얼 개발

유나킴씨

### 참여작가

김대욱

루시 맥래

리슨투더시티

박은영

스튜디오 셸터 & 기어이

아키타입

오픈투베리어블스

유리스즈키

장명식

장봉채

펠릭스 렌츠

## Hyundai Blue Prize Design 2022

Where Is My Friend's Home  
2023. 12. 8 - 2024. 6. 16

Hyundai Motorstudio Busan

### Organized by

Hyundai Motor Company

### Curator

Jimin Park

### Coordinator

Jung ah Hong

### Exhibition Design and Production

GL COMM., Saeroum Innovation co. Ltd

### Space Design

Hoe-eun Hwang (Arogonggan)

### Key Visual Design

yunakimc

### Participating Artists

archetypes

Bongchae Jeong

Daeuk Kim

Eunyoung Park

Felix Lenz

Listen to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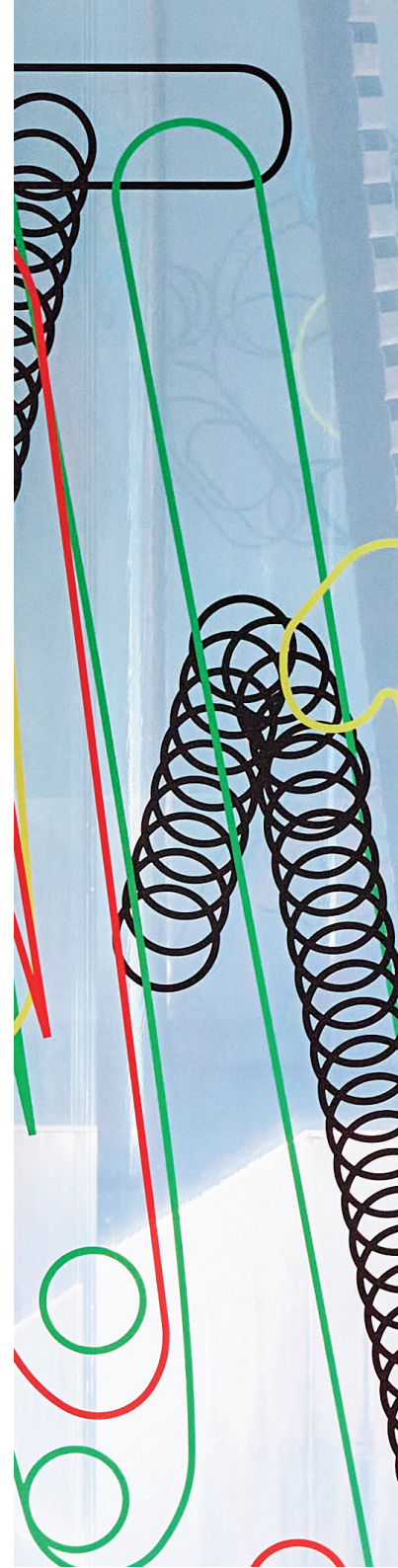
Lucy McRae

Myungsik Jang

Open To Variables

Studio Shelter & GiiÖii

Yuri Suzuki



<https://motorstudio.hyundai.com/busan>



## 운영시간

10:00 ~ 20: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신정 당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익일 휴관)

## 가이드 투어

10:30 ~ 17:00

전문 구루(Guru)와 함께

디자인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관람해보세요.

진행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투어시간: 30분 내외(가이드 수신기 제공)

## 단체투어

단체 관람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899-6611)로 연락주세요.

## 예약방법

### 사전예약

홈페이지: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고객센터: 1899-6611

### 현장접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당일 사전예약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Opening Hours

10:00 ~ 20:00

(Closed on the first Monday of every month,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anksgiving plus the following day)

## Guided Tours

10:30 ~ 17:00

Explore the design exhibition with Guru expert.

Available Languages: Korean / English / Chinese

Tour Time: Approx. 30 minutes (audio guide equipment provided)

## Group Tours

If you wish for a group tour,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1899-6611).

## Making Reservations

### Advance Tic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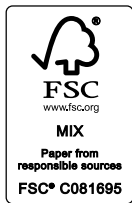
Website: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Customer Service: 1899-6611

### Onsite Ticketing

Please inquire about ticket purchase at the information desk.

Only available if the advance tickets for the day have not sold out.



본 인쇄물은 미래 세대를 위해 FSC® 인증 인쇄용지에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This brochure is printed using soy ink on FSC® certified printing paper for our future generations.